

3월 21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절 수행
- 법 사 : 동봉스님(곤지암 우리절)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3. 28(토)	화 다스림 명상	마가스님 (교법사)
4. 4(토)	생활법문	법타스님 (정각원장)
4. 11(토)	자비수관	지운스님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센터)

정각원 불교대학 5기 모집 (접수중)

- 접 수 : 수시등록가능
- 대 상 : 불교입문과정 수료자
- 수 강 료 : 9만원(분기별)
- 이수과정 : 불교대강좌 → 교리반 I,II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개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개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첨단포교실 책상 보시 받습니다♥



2인용 책상  
개당 10만원

신도님들의 신행공간이 될 정각원 첨단포교실에 2인용 책상 보시를 받습니다. 책상 상판에 보시자 성함을 새겨드릴 예정이며, 원장스님께서 첫번째로 보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을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 인 등 : 1년 5만원 토요일 시 축원 해드립니다^^
- 신청문의: 정각원사무실 ☎ 2260-3017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권선

불기 2559년 봉축연등 신청을 받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국109 발전등 : 109만원 이상
- 동 국 인 재 등 : 50만원 이상
- 소 원 성 취 등 : 30만원 이상
- 가 족 행 복 등 : 10만원 이상
- 영 가 등 : 10만원 이상

☎ 정각원 사무실 2260-3017

보시동참

3월 16일 불전 공양

₩ 1,085,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강은자, 고목훈, 권복숙, 권혁채, 김기현, 김동연, 김문희, 김봉주, 김영옥, 김종관, 김태영, 남창강, 노인옥, 박해창, 백종희, 변형하, 신용수, 안대준, 원서준,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정광자, 정다예, 조경자, 최선진, 한상훈,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479,4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강은자, 진예은, 유미선, 유지민

공양 보시

❖ 대중공양 : 김상애

❖ 불단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불단떡 : 윤복순 (신도회 운영위원)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쌓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불자님은

딱 한번만!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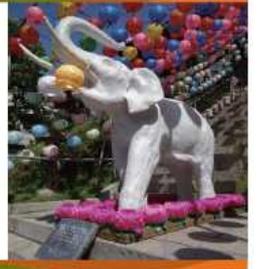


#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3월 21일

제284호(週刊)



우리의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이다.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곳으로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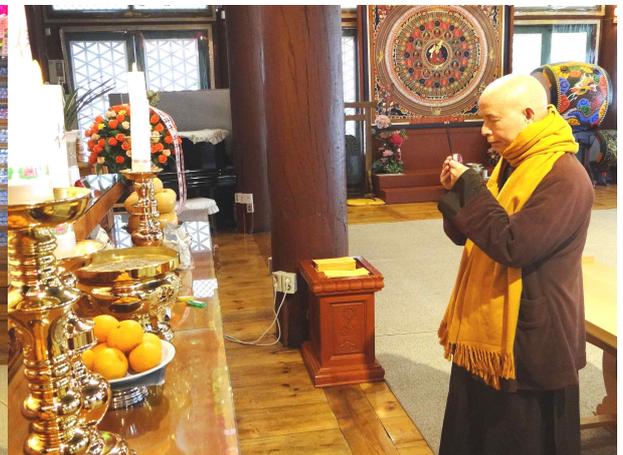
-시가라위경-

## 장충단 공원의 봄, 특특! 봄 마중 나온 산수유



◎ 봄이 찾아온 장충단 공원에 '산수유' 꽃망울이 특특 터지며 노란 꽃잎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기운을 받아 활기찬 나날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photo by. 원장스님

## 베트남 불교 단체 '원오도량' 방문



◎ 14일(토) 베트남 불교 단체 '원오도량'에서 정각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간의 학술·인적교류를 모색하고, 향후 한국 불교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절을 올리나다

동봉스님 (곤지암 우리절)

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며  
과거의 삶을 되새김이며  
현재의 삶에 감사함이며  
미래를 기쁘게 맞이함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고  
키운 마음 그릇을 비우는 일이고  
비운 데 덕을 채우는 일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조절함이고  
자신의 건강을 몸소 챙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은 자신을 낮춤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신을 비울 때  
참된 자아가 잘 드러납니다.  
육조혜능선사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절은 아집을 꺾음折입니다.  
절은 내 살림의 모든 것切이며  
자신의 컨트롤節이며  
자신을 밝힘皙이며  
건강을 가져옴竊입니다.

아집을 꺾지 않고  
어떤 경우도 타他를 품을 수 없고  
자기 조절 없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가족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나아가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절을 하면 건강은 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가져오려 하지 않았는데도  
시나브로 따라왔으니  
건강은 자연에게서 훔침竊이지요!

절은 과거의 삶을  
하나하나 되새김질反藪함입니다.  
내 삶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우는 일이 반추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 하나가  
매무새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냥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업장業障은 있습니다.  
업이 없다면 이미 부처님이겠지요.  
따라서 지은 업이 있다면  
절을 통해 참회하면 됩니다.  
참회는 제자리를 잡아줌입니다.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돌이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을 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고마움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고마움이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이 환경 이 시간이 고맙고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고맙고  
가르치신 스승님이 고맙고  
따라오는 후학들이 고맙지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준 믿음직한 남편이  
나를 선택해준 사랑스런 아내가  
내 가족이 되어준 소중한 자녀가  
시나브로 가슴 벅차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우리는 먼 데서만  
고마움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오는 시간을 기쁘게 맞이함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냥 맞나요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향긋한 다과茶菓를 준비하지요  
손님을 맞는 일은  
앞아서 맞이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로 직접 찾아 나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기보다는  
원력이란 분명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삶의 지향하는 목표지요  
저희는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용기와 원력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을 온전하게 보살필  
용기와 강한 원력을 세우겠노라고

세찬 비바람도 피하지 않고  
비지땀으로 옷이 범벅이 되고  
살을 에는 혹독한 추위로  
온몸이 그냥 오그라들더라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청량한 달빛과  
따스한 햇살만을  
벗으로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겠습니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하나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절하나이다.

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무한대로 키움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집어넣을 수 없는  
작고 협소한 마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집어넣고도 남을  
그런 마음으로 키우겠다는  
큰 원력을 담아서 절을 올립니다.

그 큰마음을 텅 비우고  
텅 비운 마음 그릇에  
강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성덕으로  
가득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러기에 절은 비움이며  
또한 동시에 채우는 수행입니다.  
또한 자신을 조절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절을 올리고 또 올리는 것입니다.

Memo